

코로나19 사태 1년 평가

■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현재 생각 비교

- _ 코로나19 정부대처, 1년 전 비해 긍정평가 하락
- _ 코로나19 대처 따른 국가위상 ‘높아졌다’, 큰 폭 하락
- _ 코로나19로 힘든 점, ‘친지.지인 만남’ 큰 폭 상승
- _ 코로나19 종식, 1년 전 비해 비관적 전망 급증
- _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
- _ 코로나19 수습국면 정부 할 일, ‘국민 일상회복’

■ 코로나19 사태 1년, 개인 삶의 변화

- _ 몸무게 늘고, 운동 덜 하고, 음주 줄어
- _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몸무게 증가
- _ 남녀 2040세대, 담배 ‘더 피운다’

■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

- _ 코로나19 겪으면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생각, ‘나빠졌다’
- _ 모든 연령에서 사회지도층 ‘나빠졌다’ 높아
- _ 수도권과 TK, 사회지도층에 특히 비판적
- _ 보수층과 중도층, 사회지도층에 반감 보여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3월 5일(금) ~ 3월 7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7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99\%$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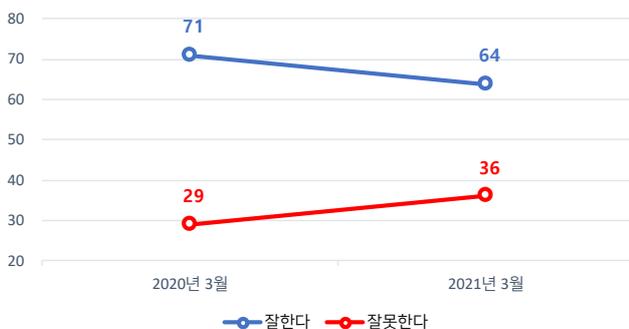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현재 생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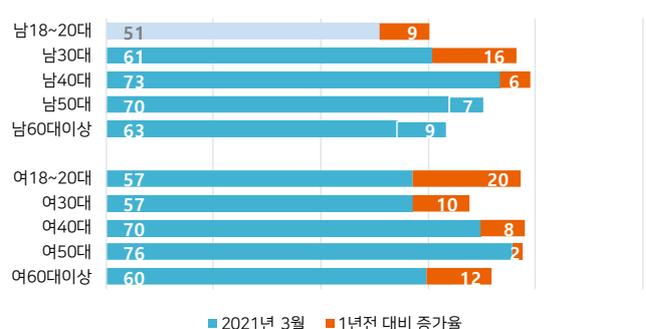
코로나19 정부대처, 1년 전 비해 긍정평가 하락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대처에 대해 국민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작년 3월에 비해서는 긍정평가 비중이 하락함
 - 이번 조사에서 ‘잘한다’는 의견은 64%이고, ‘잘못한다’는 의견은 36%를 기록함
 - 작년 3월 29일 조사에서는 ‘잘한다’ 71% vs ‘잘못한다’ 29%였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함
- 먼저 계층별 긍정평가 비중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4050세대 △호남 △진보층 △블루칼라 △정부신뢰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막대와 수치가 2021년 3월 현재 긍정평가 비중임
 - 긍정평가 비중이 낮은 계층은 △남자 18~20대(51%) △보수층(50%) △정부불신층(39%) 등임
- 1년 전인 작년 대비 증가율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마이너스 수치가 큰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경기.인천, 충청권 △주부, 학생 등임
 - 우측 막대와 숫자가 1년 전 대비 증가율로, 파란색은 플러스이고 주황색은 마이너스를 의미함
 -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 △TK △자영업, 블루칼라 △정부불신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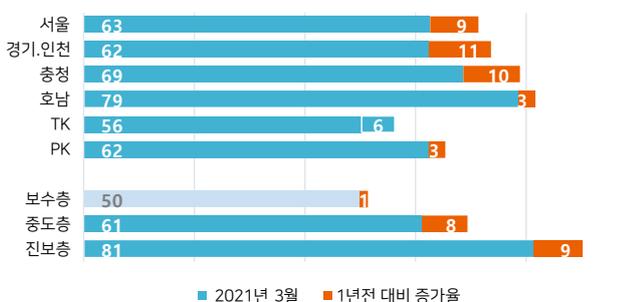
코로나19 정부대처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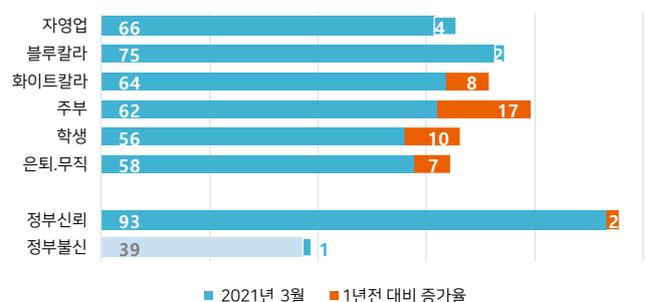
코로나19 정부대처 긍정평가, 증가율 : 성/연령별 (단위:%,%p)



코로나19 정부대처 긍정평가, 증가율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p)



코로나19 정부대처 긍정평가, 증가율 : 직업별,정부신뢰별 (자료:케이스탯,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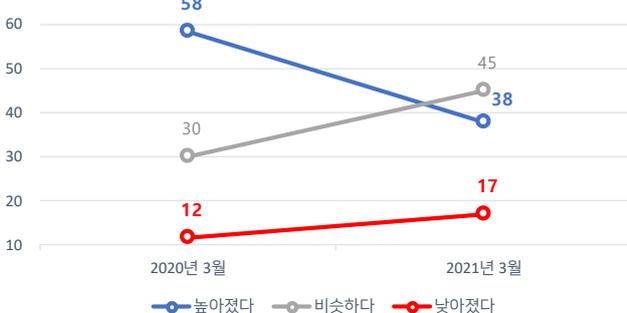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작년 3월에는 조기 진단과 빠른 격리조치 등 이른바 ‘K 방역’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았음 : 다른 국가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매우 낮은 한국 상황을 보면서 정부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됨
- ☑ 같은 맥락에서 올해 정부대처 긍정평가 비중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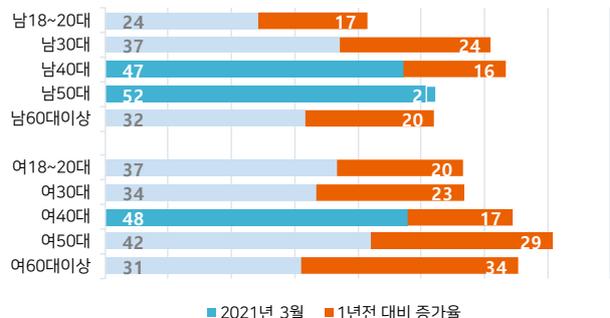
□ 코로나19 대처 따른 국가위상 '높아졌다', 큰 폭 하락

-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확산방지 및 대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나 위상이 '이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45%이고, 다음으로 '이전보다 높아졌다(38%)', '이전보다 낮아졌다(17%)' 순임
 - 작년에는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의견이 58%로 우세했으나, 올해에는 20%p 하락함
- 국가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40대 △진보층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정부신뢰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막대와 수치가 2021년 3월 현재 긍정평가 비중임
 - 그외 계층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정부불신 계층만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의견이 우세함
- 작년 대비 긍정평가 증가율을 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마이너스 수치가 큰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30세대, 여자 5060세대 △서울, 경기.인천 △중도층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등임
 - 우측 막대와 숫자가 1년 전 대비 증가율로, 파란색은 플러스이고 주황색은 마이너스를 의미함
 -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계층은 △남자 50대가 유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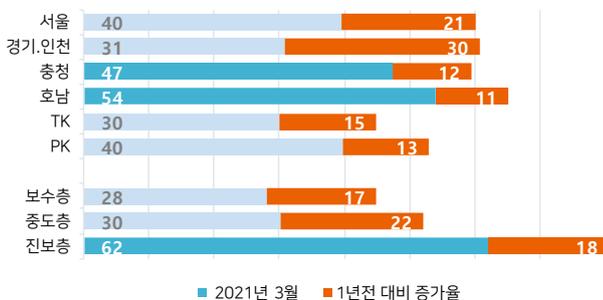
코로나19 정부대처, 국가위상 변화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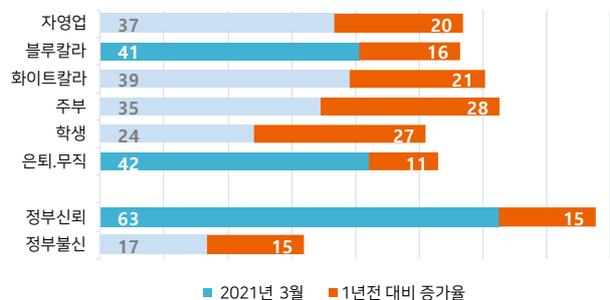
정부대처, 국가위상 변화 긍정평가, 증가율 : 성/연령별 (단위:%,%p)



정부대처, 국가위상 변화 긍정평가, 증가율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단위:%,%p)



정부대처, 국가위상 변화 긍정평가, 증가율 : 직업별,정부신뢰별
(자료:케이스탯,단위:%,%p)



Kstat Point

- ☑ 작년 3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부대응에 대해 WHO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모범사례'로 평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 역시 국가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임
- ☑ 하지만 올해 들어 전 세계적 관심이 '방역'에서 '접종'으로 이동함에 따라 미국·유럽에 비해 백신 접종이 늦어진 점이 부각되면서, 긍정평가 비중이 하락하고 '이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 정부·여당이 백신 개발 초기, '부작용'을 말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민 의식과 괴리된 판단이었다는 지적임

□ 코로나19로 힘든 점, '친지.지인 만남'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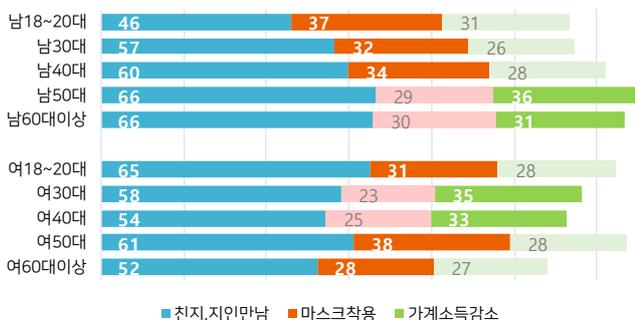
-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친지나 지인과의 만남'(58%)인 것으로 조사됨
 - 작년에도 '친지나 지인과의 만남'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답했으나, 올해에는 약 20%p나 상승하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다음으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31%)', '가계소득 감소(30%)', '병원.보건소 방문(18%)', '대중교통 이용(1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작년에 '마스크 대란'의 영향으로 3위를 기록했던 '마스크 구입'은 올해 들어 5%로 급감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친지나 지인과의 만남'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음
 - 특히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18~20대 △보수층 등임
- 두 번째로 힘든 점은 계층마다 다른데, '마스크 착용'을 꼽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5060세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중도층, 진보층 등임
 - 주부 계층은 '마스크 착용'과 '가계소득 감소'가 공히 29%로 나타남
- '가계소득 감소'를 두 번째로 힘들다고 응답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3040세대 △자영업, 은퇴.무직자 △보수층 등임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힘든(불편한) 점 (2개선택) 추이 : 국민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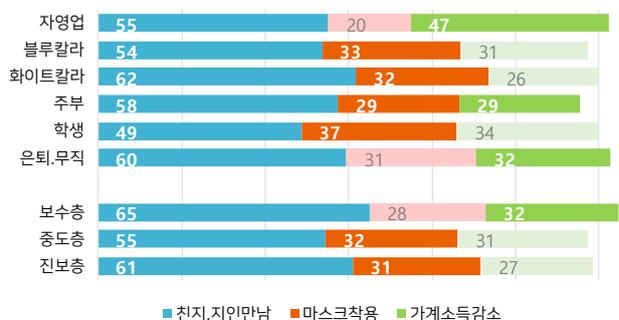
(자료:케이사트,2020.03.29/2021.03.07조사,단위:%)



2021년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 : 성/연령별 (단위:%)



2021년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 : 직업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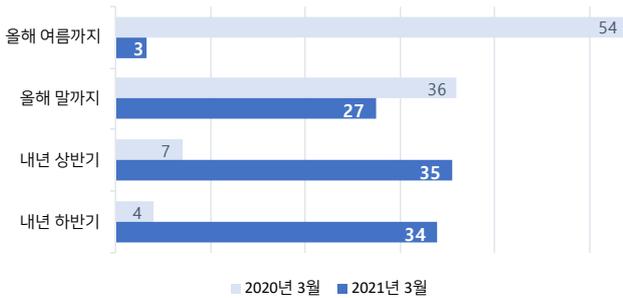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친지와 지인'을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현실, 즉 '일상의 무너짐'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백신 접종'이 늦어진 것은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아쉬운 지점임
- ☑ 한편,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계층별로 '힘들다'는 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계층에서 '소득감소'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선별/보편 지급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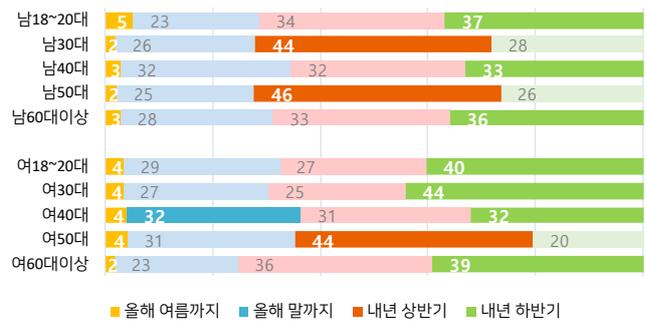
□ 코로나19 종식, 1년 전 비해 비관적 전망 급증

- 작년 3월 조사에서 국민 중 54%가 ‘올해 여름까지’ 코로나19가 안정 또는 종식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는 ‘올해 여름까지’라는 응답이 3%에 불과하고, ‘내년 상반기(35%)’나 ‘내년 하반기(34%)’라고 생각하고 있음
 - ‘올해 말까지’ 라는 응답은 27%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내년 상반기’와 ‘내년 하반기’가 비슷한 규모로 혼재되어 있는 양상임
- 먼저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근소하게나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50대 △여자 50대 △경기.인천, 충청, PK △보수층, 진보층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학생 등임
 - 중도층은 ‘내년 상반기’와 ‘내년 하반기’가 각각 34%로 동일하게 높음
- ‘내년 하반기’라는 응답이 근소하게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서울, TK △화이트칼라, 은퇴.무직자 △정부 불신층 등임
 - 여자 40대는 ‘내년 하반기’와 ‘올해 말까지’가 32%로 동일함
- 한편, ‘올해 말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 △정부신뢰층 등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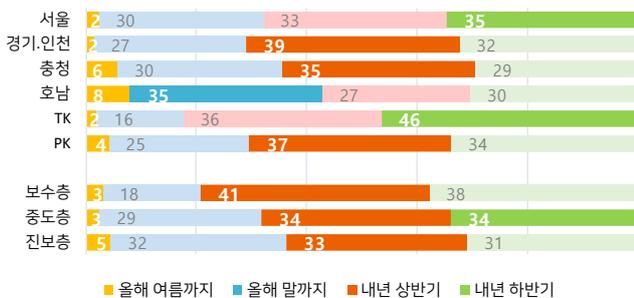
코로나19 안정 또는 종식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3.29/2021.03.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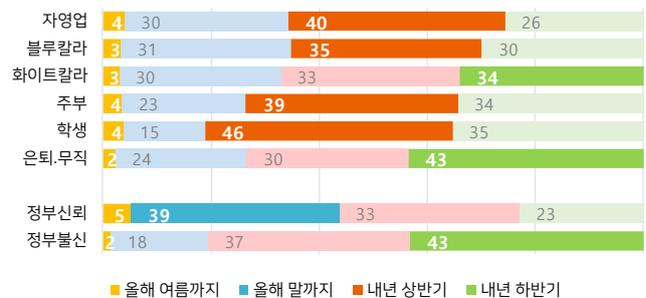
2021년 코로나19 안정,종식 전망 : 성/연령별 (단위:%)



2021년 코로나19 안정,종식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2021년 코로나19 안정,종식 전망 : 직업별,정부신뢰별
(자료:케이스탯,2021.03.07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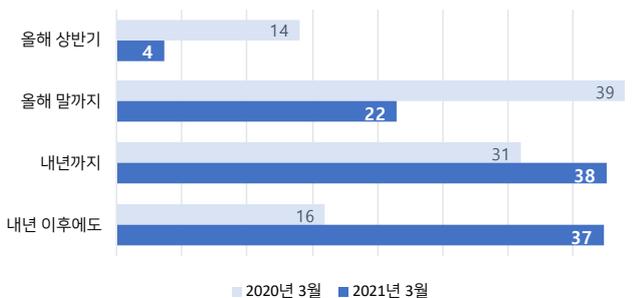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3월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장기화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시켜 연말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와 달리 내년 에야 종식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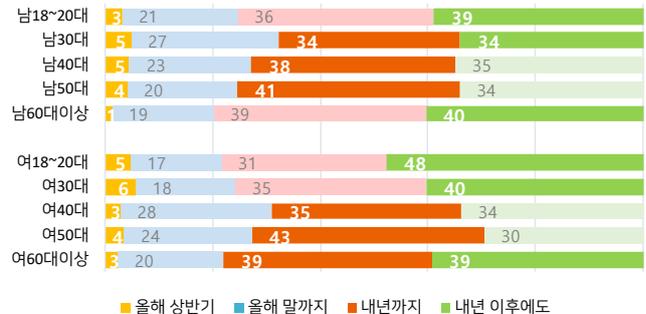
□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질문에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올해 말까지'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내년까지' 31%, '내년 이후에도' 16%,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으로 조사됨
- 1년 후인 이번 조사에서는 '내년까지(38%)'와 '내년 이후에도(37%)'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올해 말까지'는 22%, '올해 상반기' 4%순이었음
- 계층별로도 '내년까지'와 '내년 이후에도'가 혼재돼, 작년보다 비관적 전망이 높아짐
- '내년까지'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4050세대 △서울, 충청, 호남 △진보층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정부신뢰층 등임
 - 남자 30대와 여자 60대이상은 '내년까지'와 '내년 이후에도'가 같은 수치를 기록함
- '내년 이후에도'라고 좀 더 멀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2030세대 △경기.인천, TK, PK △보수층, 중도층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정부 불신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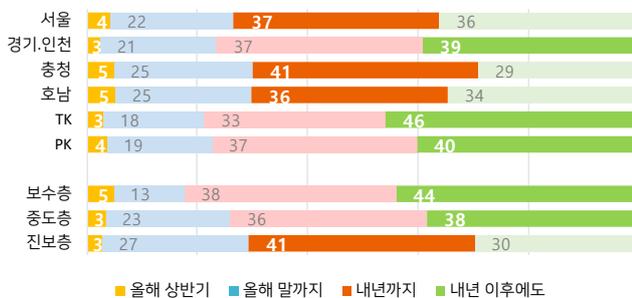
코로나19 경제적 파장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03.29/2021.03.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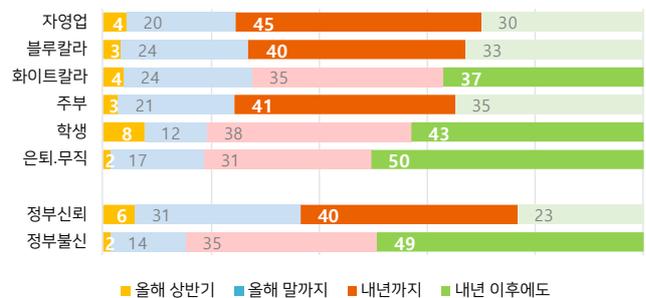
2021년 코로나19 경제적 파장 전망 : 성/연령별 (단위:%)



2021년 코로나19 경제적 파장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2021년 코로나19 경제적 파장 전망 : 직업별,정부신뢰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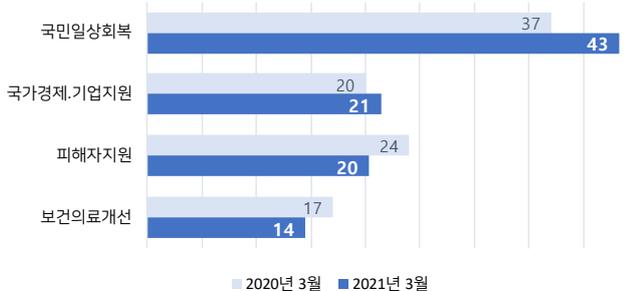
Kstat Point

- ☑ 앞서 코로나19 종식 전망과 연결 지으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종식될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내년과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장기화에 따라 피로감도 커지고, 그에 비례해 비관적 전망도 커진 것으로 분석됨
- ☑ 이에 정부 목표대로 올해 안에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할 경우, 여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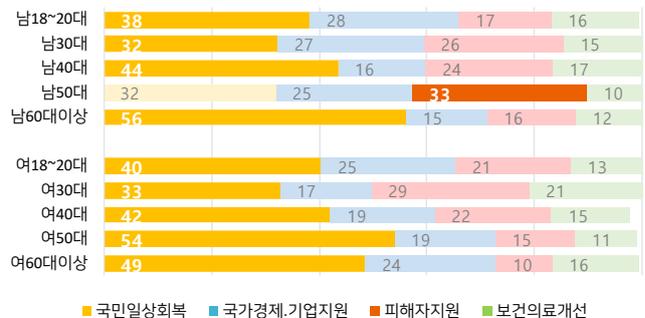
□ 코로나19 수습국면 정부 할 일, '국민 일상회복'

- 코로나19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로 국민이 꼽은 것은 '국민생활 정상화, 일상 회복'(43%)으로 나타남
 - 작년 3월에는 37%로 1위였으나, 올해에는 비중이 더 높아짐
- 다음으로는 '국가경제, 수출, 기업활동 지원대책 수립(21%)', '경제적 약자, 피해자 지원 및 대책 수립(20%)', '방역, 보건의료, 재난대응 체계 진단과 개선(14%)'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국민 일상회복'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응답, 국민 의견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 50대만 '피해자 지원'이 33%로 '국민 일상회복(32%)'보다 근소하게 높음
- '국민 일상회복'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60세대 △충청, 호남 △보수층 △주부, 은퇴.무직자 △정부 불신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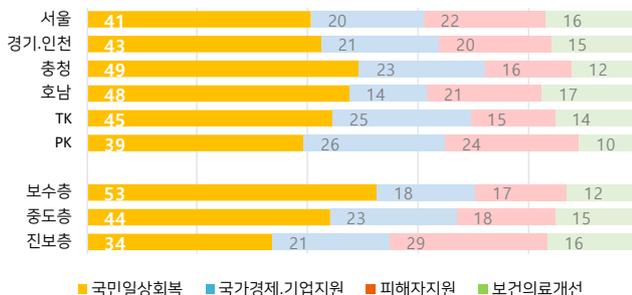
코로나19 수습국면 정부 할 일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03.29/2021.03.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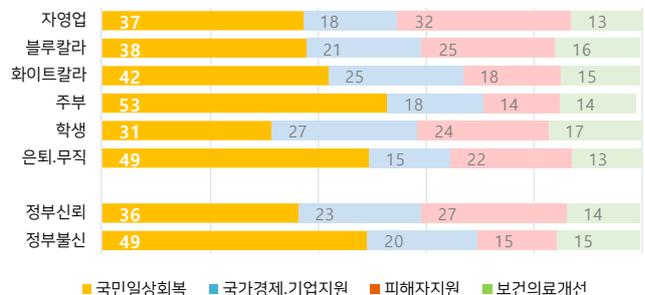
2021년 코로나19 수습국면 정부 할 일 : 성/연령별 (단위:%)



2021년 코로나19 수습국면 정부 할 일 : 지역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2021년 코로나19 수습국면 정부 할 일 : 직업별, 정부신뢰별
(자료:케이스탯, 2021.03.07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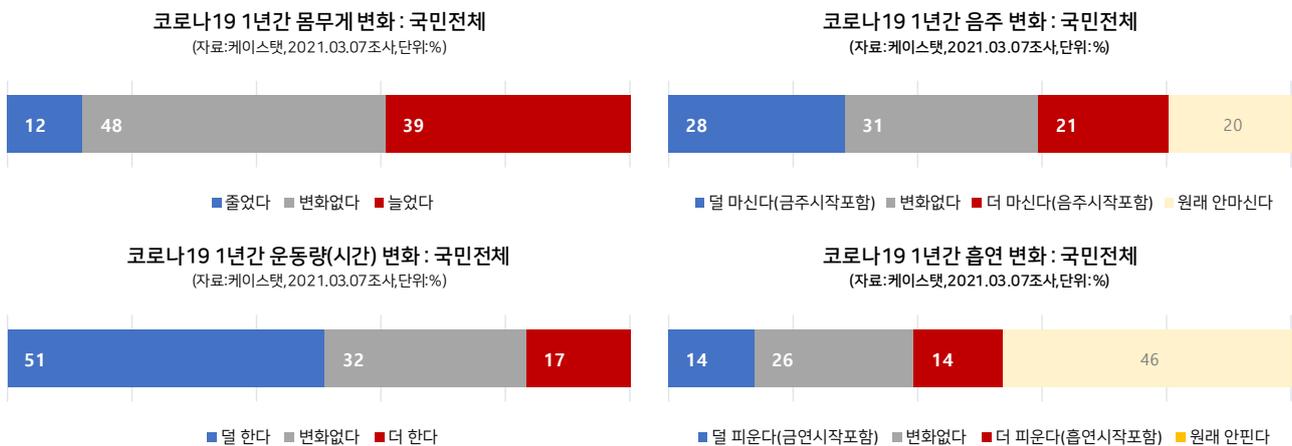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코로나19 수습국면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 일상회복'이라고 생각함
 - : 앞서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친지, 지인 만남을 끊은 것'에서 보듯, 국민들은 '일상의 무너짐'을 가장 힘들어 하고, 이에 따라 '국민 일상회복'을 정부의 최우선 할 일로 생각하고 있음
- ☑ 주목되는 지점은 정부 및 정치권의 코로나19 피해대책이 '경제적 지원'에 맞춰져 있는 데 비해 국민들은 '일상회복'을 더 원한다는 점으로, 향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경제외적인 요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사태 1년, 개인 삶의 변화

□ 몸무게 늘고, 운동 덜 하고, 음주 줄어

-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경과한 지금 국민들의 지난 1년 삶의 변화를 질문한 결과 몸무게는 늘었고, 운동을 덜 하며, 음주는 줄었고, 흡연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각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몸무게의 경우 ‘늘었다’는 응답이 27%p로 높고, 운동량은 ‘덜 한다’는 응답이 34%p 높음
- 음주는 ‘덜 마신다(금주시작 포함)’가 8%p 높고, 흡연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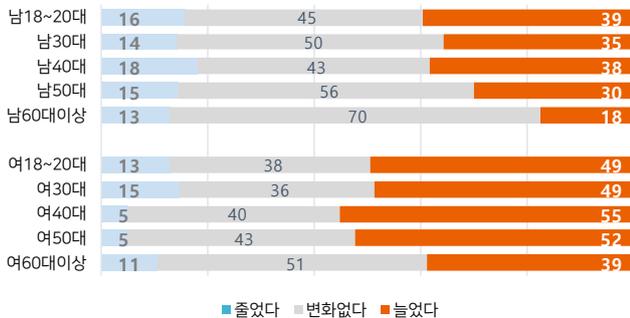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운동량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몸무게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 ☑ 이와 관련,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체중 증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 2020년 9월,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실린 코로나19 감염 환자 5,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35%가 비만이었으며,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함
 - : 또한 2021년 3월 발표된 ‘세계비만연맹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사망한 250만명 중에 220만명이 과체중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했으며, 성인의 반 이상이 과체중인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분석함
- ☑ 코로나19 취약성과 더불어 비만은 이른바 ‘만병의 근원’으로 불릴 만큼 유의해야 할 건강상 문제라는 점에서 코로나19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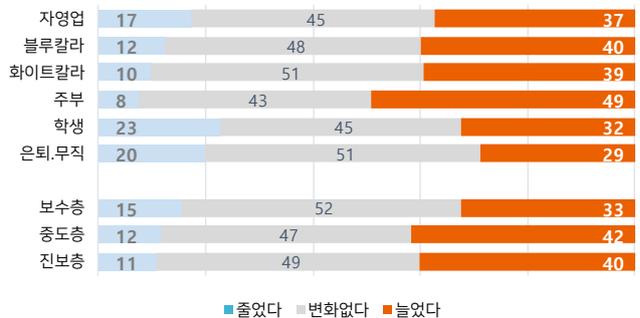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몸무게 증가

- 몸무게 변화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몸무게가 ‘늘었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성 계층에서 몸무게가 ‘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성/연령별 몸무게 변화 응답에 있어 ‘늘었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성/연령은 △여성 4050세대임
 - 이에 비해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전체 ‘늘었다’는 응답(39%) 이하 수치를 보임
- 직업별 몸무게 변화 응답에 있어서도 주부 계층에서 ‘늘었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남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상대적으로 중도층과 진보층이 ‘늘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운동량 변화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덜 한다’는 응답이 높아, 몸무게 증가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직업별,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봐도 운동량 변화는 몸무게 변화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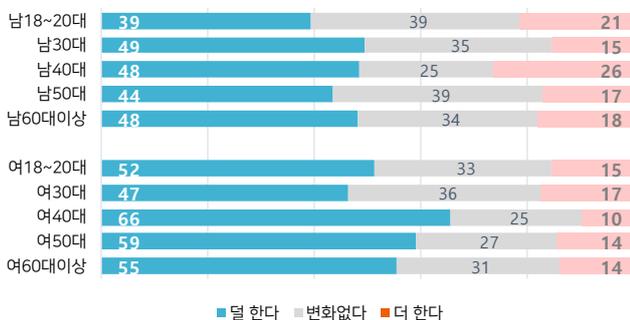
코로나19 1년간 몸무게 변화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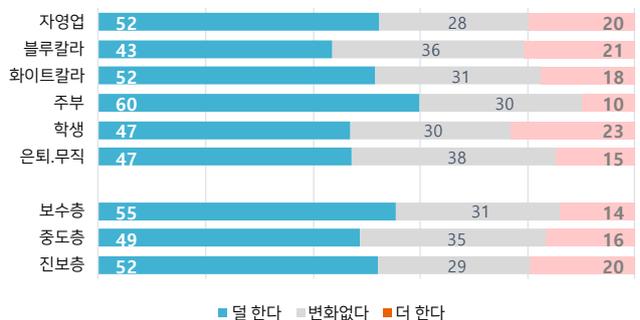
코로나19 1년간 몸무게 변화 : 직업별,이념별 (단위:%)



코로나19 1년간 운동량(시간) 변화 : 성/연령별 (단위:%)



코로나19 1년간 운동량(시간) 변화 : 직업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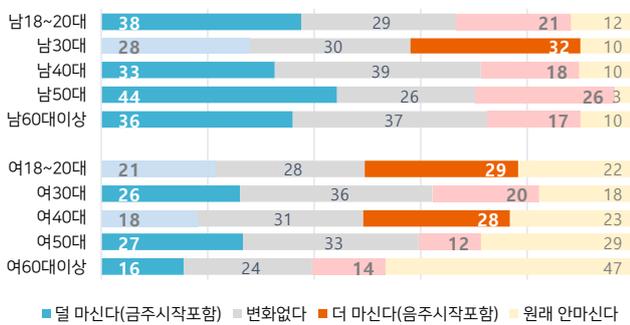
Kstat Point

- ☑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여성층이 남성층에 비해 운동량이 줄었고, 몸무게는 늘어난 것으로 보임
- ☑ 하지만 유의해야 할 지점은 여성층의 몸무게가 늘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만’해졌다고 볼 수 없음
- ☑ 만 19세이상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가 25kg/m² 이상인 분율, 2018년 통계청 자료)을 살펴보면 남성은 42.8%이고, 여성은 25.5%로 남성이 여성보다 비만함
- ☑ 이번 조사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몸무게와 운동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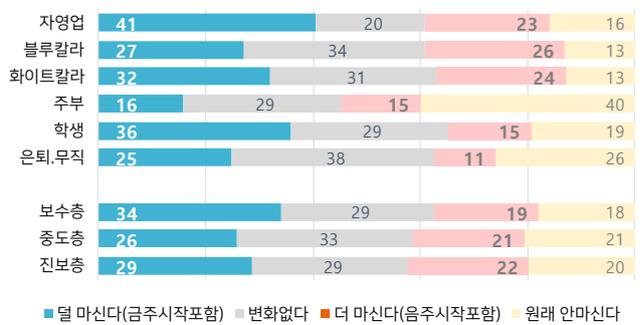
□ 남녀 2040세대, 담배 '더 피운다'

- 코로나19 1년간 음주 변화와 흡연 변화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계층별로 증감의 차이가 존재함
- 먼저 음주 변화에 있어 '덜 마신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60세대 △여자 30대, 여자 5060세대 △전 직업군, 전 이념성향층 등임
- 이에 비해 술을 '더 마신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등임
- 흡연 변화의 경우 '덜 피운다'와 '더 피운다'가 더 대비되는데, '덜 피운다'가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자영업,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보수층 등임
 - 주부는 '덜 피운다'와 '더 피운다'는 응답이 동일함
- 담배를 '더 피운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2040세대 △블루칼라 △중도층, 진보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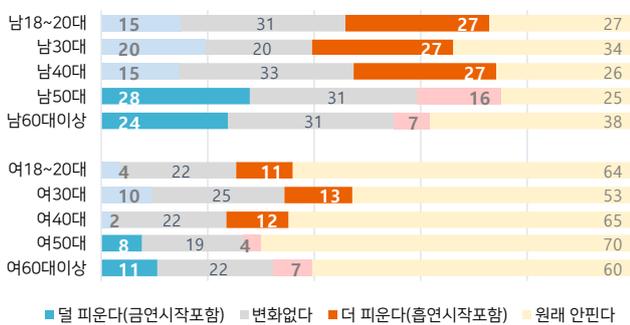
코로나19 1년간 음주 변화: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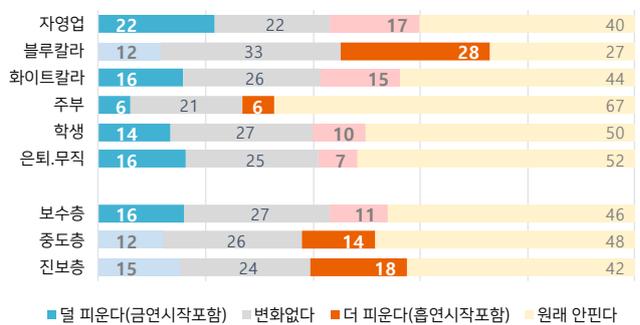
코로나19 1년간 음주 변화: 직업별,이념별 (단위:%)



코로나19 1년간 흡연 변화: 성/연령별 (단위:%)



코로나19 1년간 흡연 변화: 직업별,이념별 (단위:%)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술을 '덜 마신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 직장 회식이 사실상 사라지고, 친구.지인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음주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분석됨
- ☑ 이에 비해 담배의 경우 남녀 모두 2040세대는 '더 피우고', 5060세대는 '덜 피우는' 특징을 보임
 - : 통상적으로 흡연인구 증가는 스트레스 인구 증가라고 말해지는 것에 비춰 볼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남녀 2040세대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

코로나19 겪으면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생각, '나빠졌다'

- 코로나19 사태 1년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국민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생각 변화 정도가 0.5점 미만의 작은 차이를 보임
- 다만,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0.72점을 기록, '나빠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이 가장 높았고(0.47점), 다음으로 '배우자(또는 연인)'(0.40점), '친구들'(0.22점), '내 개인'(0.18점), '직장/학교동료'(0.10점), '일반국민'(0.02점) 등으로 조사됨
- '나빠졌다'는 응답은 '우리사회(공동체)'가 -0.20점을 기록했고, 사회지도층은 -0.72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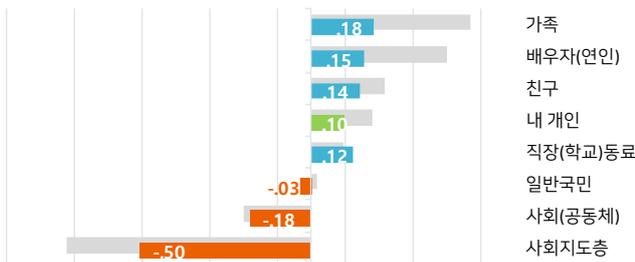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다양만 측면에서 면밀히 조망할 필요가 있음
- ☑️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했으나 국민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즉,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의 멈춤'을 겪고 있지만, 사람들 및 자신에 대한 생각에는 별다른 영향을 안 미친 것으로 보임
- ☑️ 다만, '사회지도층'에 대한 생각만큼은 -0.72점으로 '나빠졌다'고 응답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사회지도층'으로 향한 결과로 분석됨
 - :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좋아졌다'고 응답하면서도 '우리사회(공동체)'에 대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것 역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반감의 표현으로 보임
- ☑️ 향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 : 특히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 사회적 기여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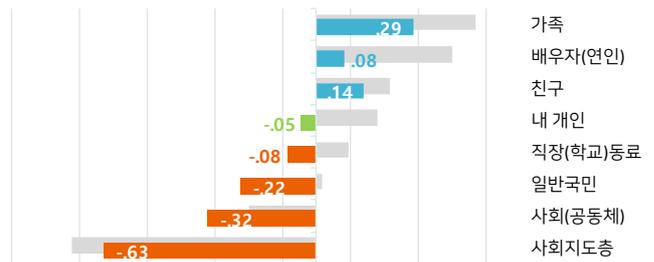
□ 모든 연령에서 사회지도층 '나빠졌다' 높아

-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생각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생각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사회지도층'에 대한 생각 변화 점수가 국민전체(-0.72점)에 비해 높은 연령층은 50대와 60대임
 - 그래프의 회색 막대가 국민전체 평균 점수임
 - 이에 비해 국민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연령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30대, 40대 등인데, 이들 역시 절대적 측면에서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적 생각 변화가 큼
- 한편, '일반국민'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연령별로 상반된 점이 주목됨
 - 남녀 18~20대와 30대는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4060세대는 '좋아졌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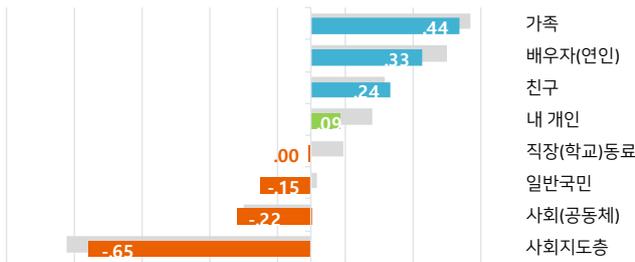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남자18~20대 (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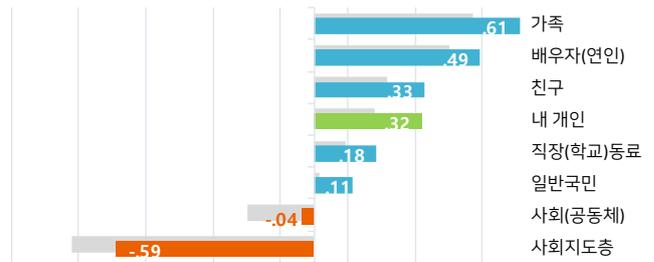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여자18~20대 (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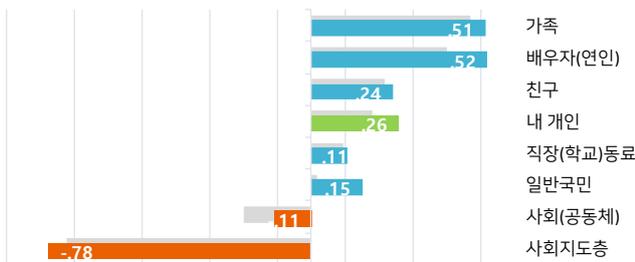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30대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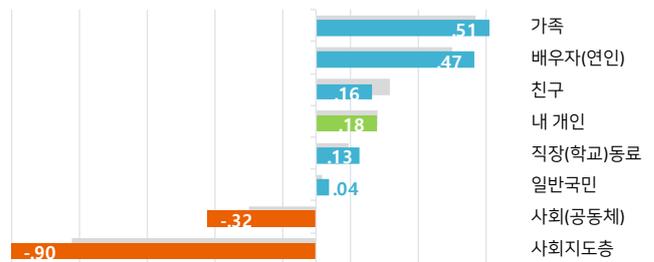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40대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50대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60대이상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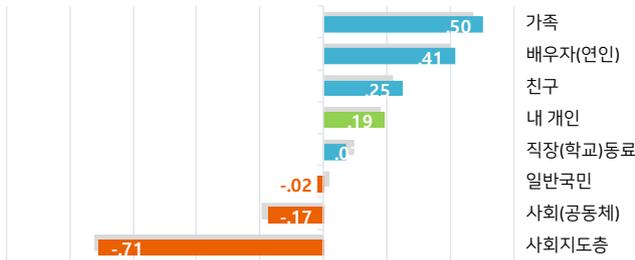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지도층'에 대한 반감은 모든 연령에서 뚜렷해, 그만큼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에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일반국민'에 대한 연령별로 상반된 태도는 세대 차이인 것으로 보임
 - : '라떼~'라는 유행어에서 보듯 2030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을 '낡은 경험'으로 비판하고, 4060세대는 젊은세대의 '다른 사고'를 '철 없다'고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의 결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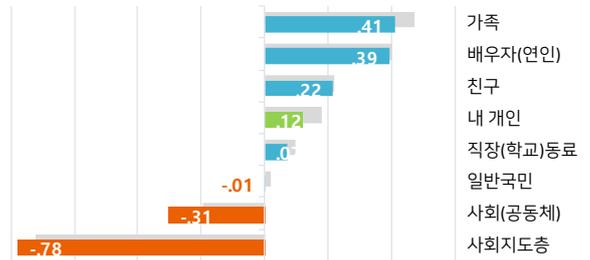
□ 수도권과 TK, 사회지도층에 특히 비판적

- 지역별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역시 모든 지역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생각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생각 변화 점수가 국민전체(-0.72점)에 비해 높은 지역은 경기.인천(-0.78점)과 TK(-1.00점)지역이고, 서울과 부산은 국민전체 점수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서울 -0.71점, PK -0.69점)
 - 그래프의 회색 막대가 국민전체 평균 점수임
 - 국민전체 평균 점수보다 확연히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역은 충청권(-0.65점)과 호남(-0.49점) 등임
- 한편, ‘우리사회(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빠졌다’고 응답함
 - 특히 ‘나빠졌다’는 수치가 높은 지역은 경기.인천(-0.31점), TK(-0.31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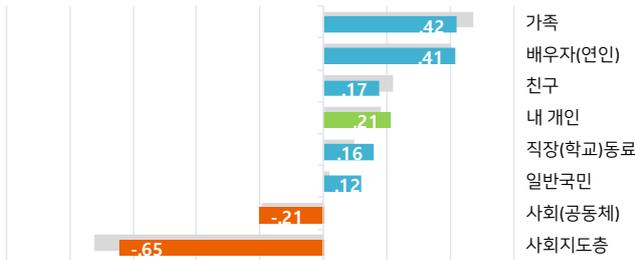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서울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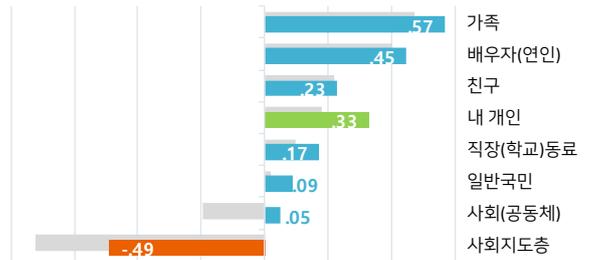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경기.인천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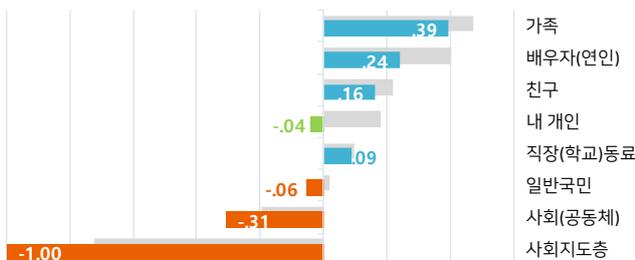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충청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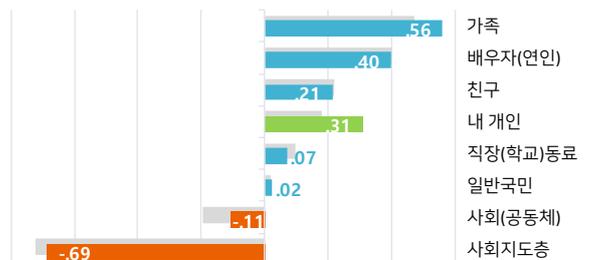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호남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TK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 PK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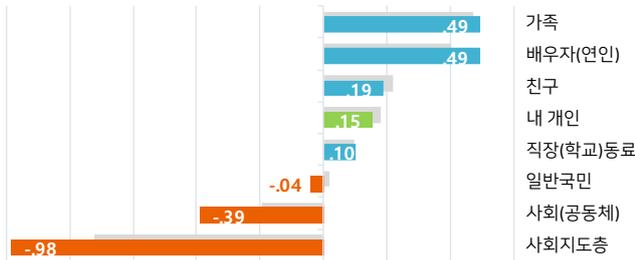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지도층’이라 할 때 국민들은 먼저 대한민국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 인사를 연상하는 것으로 보임
 - : 호남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보이고, TK가 가장 부정적인 점수를 보인 이유는 이 때문으로 분석됨
 -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하는 것도 서울과 PK에서의 높은 부정적 점수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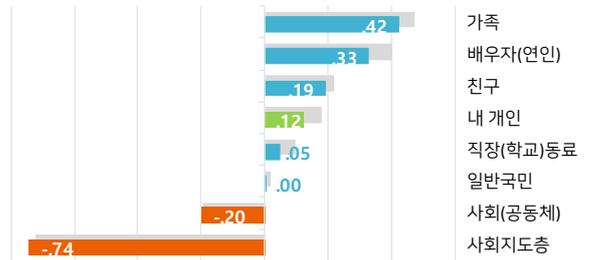
□ 보수층과 중도층, 사회지도층에 반감 보여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한 가운데 ‘내 개인’에 대한 평점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평점은 다소 차이가 있음
- ‘내 개인’에 대한 생각 변화에 있어 보수층과 중도층은 ‘좋아졌다’는 점수가 국민전체보다 낮은 데 비해 진보층은 높음
 - 그래프의 회색 막대가 국민전체 평균 점수임
- ‘사회지도층’에 대한 생각 변화 점수는 보수층과 중도층은 국민전체에 비해 ‘나빠졌다’고 응답함(보수층 -0.98점, 중도층 -0.74점)
 - 이에 비해 진보층은 국민전체 평균 점수보다 확연히 낮은 점수를 기록함(-0.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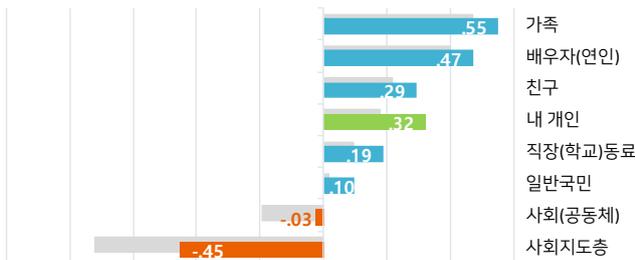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보수층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중도층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변화: 진보층 (자료:케이스탯,03.07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보수층과 중도층이 생각의 궤를 같이하고, 진보층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양상임
 - : 최근 주요 정치지표(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가상대결 결과)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이른바 ‘진영대결’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이 보수층과 연합하는 흐름으로 분석됨
 - : 중도층의 이러한 태도는 보수층이 좋아서라기보다 진보층이 싫어서가 큰 것으로 보임
 - : 일례로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 ‘공과를 구분하자’면서 ‘공’을 부각하는 것은 진보층 결집을 이룰 수 있겠지만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임
- ☑ 오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여권이 이러한 태도를 노출할 경우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2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25호는
4월 15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